

브아솔 “앨범 트랙리스트에 우리의 서사 담았다”

4집 '솔 쿽' 발표한 브라운아이드소울

한 곡씩 들으면 퍼즐 한 조각을 보는 것 전체를 순서대로 들으면 큰 그림 보여 '앨범'이라는 아날로그 감성 부활 기대

남성 중창그룹 브라운아이드소울(정영·나열·영준·성훈, 브아솔)은 여러 가지로 '고집'이 강하다. '간편함'에 타협하지 않고, 시류에 영합하지도 않으며 오히려 역행한다. 그러나 그 고집이 브아솔만의 정체성과 브랜드를 만들어냈다.

디지털 음원이 보편화한 시대이지만, 브아솔은 8일 17곡이나 수록된 '앨범'을 5년 만에 냈다. 2010년 3집 이후 이번 4집 '솔 쿽'(Soul Cooke)까지 지난 5년 동안 간간히 싱글을 내기도 했지만 이는 앨범을 내기 위한 과정이었다. 또 2003년 1집 이후 이번 5집까지 12년간 내놓은 4장의 앨범 모두 이들의 정체성이 오롯이 담겼다.

8일 서울 논현동에서 만난 브아솔은 "앨범의 트랙리스트를 통해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서사가 있다. 한 곡씩 들으면 퍼즐 한 조각을 보는 것이지만, 전체를 순서대로 들으면 우리가 그리고 싶었던 그림을 볼 수 있다"고 앨범의 의미를 설명했다.

"요즘 어린 친구들은 CD를 모른다. '앨범'에 대한 감성이 소멸되어가고 있는데, 복고가 유행하는 것처럼 '앨범'이라는 아날로그 감성도 되살아났으면 좋겠다. 시대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단지 우리의 정통성만큼은 지키고 싶다."

이번 앨범은, 카세트테이프의 마그네틱을 풀어헤쳐 파스타처럼 만들어낸 앨범 표지처럼, 흑인음악을 '요리'한다는 콘셉트로 내세워 197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시대별 흑인 음악을 한 앨범에 담았다. 1970년대 미국 필라델피아 스타일인 필리 솔, 1990년대 R&B, 모던 솔, 펑크(funk), 재즈까지 녹여내는 등 다채로운 요리로 테이블을 채운 17집 반상의 만찬 같은 앨범이다.

"과거의 흑인음악을 시대별로 재현할 수 있었다는 건 우리만의 특권인 것 같다. 과거



브라운아이드소울이 8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정규 4집 '솔 쿽' 발표 기념 쇼케이스를 열고 있다. 5년 만에 팬들 곁으로 돌아온 이들의 색깔이 진하게 배어났다. 김진환 기자 kwangshin00@donga.com

우리가 사랑하고 좋아했던 음악을 다시 부르고 싶었다."

그 메인 요리는 '밤의 멜로디'와 '홈' 두 곡이다. '밤의 멜로디'는 필리 솔 넘버이고, 마치 팝송을 작곡한 듯한 가사와 애절한 멜로디가 돋보인다. '홈'은 1990년대 전형적인 팝 발라드로 하모니가 어우러진다. 가정의 소중함을 돌아보게 하는 위로의 노래다.

'앨범'에 대한 고집처럼, 12년간 꾸준히 한국적 솔 음악을 해온 브아솔은 "한글 가사로 필리 솔을 완성했다는 자부심이 있다"며 음

악적 성취감을 드러냈다. 더욱이 '밤의 멜로디'는 많은 이가 공감하기 어려운 곡일 수 있지만, 발표와 동시에 국내 음원차트 1위를 휩쓸었다. 자기만족에 그치지 않고, 대중적으로도 성과를 얻은 것이다.

"너무 기분이 좋긴 한데, 굉장히 의외였다"는 나열은 "'밤의 멜로디'의 전체적인 소리가 옛날 (미국식)사운드여서 어려울 수 있지만, 멜로디 위주의 곡이어서 감동을 주지 않나 생각한다"고 분석했다.

브아솔은 지금까지 그래온 것처럼, 앞으로

도 자신만의 길을 가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1~2집은 소속사의 의도대로 만들었지만, 3집부터 온전히 우리가 하고 싶은 방향으로 해왔다. 앨범이 나올 때마다 '대중성이 떨어진다'고 말하시는 분도 많지만, 우리가 추구하는 음악을 할 수 있어서 앨범이 의미 있고, 또 그만큼 소중하다."

방송 출연을 하지 않고 공연으로 팬들을 만나는 것도 이들의 '고집'이다. 이번에도 이들은 전국투어로 신곡 무대를 펼치고 있다.

김원겸 기자 gymmy@donga.com

연말 음악차트 대혼전

브라운아이드소울 새 앨범 차트 강타
오늘 god·내일 엑소 등 줄줄이 컴백

연말은 흔히 '결산'의 시간이지만, 올해 12월 가요계에서는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다. 12월 들어 '음원강자'들의 신곡이 잇따라 쏟아지며 2015년 음악차트가 막판 대혼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8일 남성 중창그룹 브라운아이드소울(브아솔)이 5년 만에 발표한 정규앨범 수록곡들이 발표와 동시에 차트를 강타하고 있다. 이날 0시 공개된 4집 '솔 쿽' 타이틀곡 '밤의 멜로디'가 멜론, 지니, 엠넷닷컴 등 국내 8개 모든 음악사이트 실시간차트 1위를 기록한 것을 비롯해 '홈' '사랑의 말' 등이 10위권을 휩쓸며 채우고 있다. 이번 앨범엔 모두 17곡이나 수록돼 그야말로 '응당 폭격'을 가했다.

브아솔의 컴백으로 인해 그들 불라비의 지코는 솔로앨범을 냈다가 '1일 천하'에 그치고

말았다. 지코는 7일 첫 솔로앨범을 발표해 타이틀곡 '유레카'로 싸이 '대디'를 밀어내고 차트 정상을 휩쓸었다. 싸이는 1일 3년5개월 만의 새 앨범인 7집 '칠집싸이다'를 발표해 드라마 '응답하라 1988' 삽입곡 '소녀'를 넣어냈고, 4일 미니앨범을 낸 소녀시대-태티서의 '더어 산타'에 일시적으로 밀렸다 다시 정상을 오르는 저력을 드러낸 바 있다.

문제는 이런 혼전이 앞으로 계속된다는 것이다. 대형가수들이 줄줄이 컴백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9일 god가 신곡 '웃픈 하루'

와 '네가 할 일'을 12시간 간격을 두고 발표한다. 10일엔 '최강 아이돌' 엑소가 '싱 포 유' '불공평해' 두 곡을 타이틀곡으로 내세운 겨울 스페셜 앨범을 내놓는다. 김예림과 버벌진트가 함께 한 싱글 '스테이 에버'도 9일, 윤하와 B1A4도 10일 각각 신곡을 낸다. 브랜뉴뮤직 등 기획사 단위의 싱글도 예고돼 치열한 경쟁이 예고된다.

12월 차트순위가 반전이 거듭되면서 월간 차트 결과에 벌써부터 궁금증이 쏠리고 있다.

김원겸 기자

스타, 그때 이런 일이

〈1991년 12월 9일〉



MBC '인간시대' 300회 특집

매주 토요일 오전이면 TV를 바라보는 시청자의 눈시울이 종종 붉어진다. 토요일 오전 8시55분 방송하는 MBC '휴먼다큐 사람이 좋다' 때문이다. 얼굴과 이름이 널리 알려진 연예인들이 주로 등장하는 프로그램은 이들의 인기와 명성 이면에 숨겨진 사연을 파스한 시선으로 그리며 화제를 모으곤 한다.

이 같은 휴먼 다큐멘터리의 가장 대표적인 프로그램이면서 '원조격'으로 꼽히는 것이 있다. 이제 사라진 MBC '인간시대'(사진)다.

1991년 오늘 '인간시대'가 300회를 맞았다. 1985년 5월9일 삼보컴퓨터 이윤기 사장의 스토리를 담은 '청계천에서 세계로'를 첫 방송하며 시청자와 만난 뒤였다. '인간시대'는 300회 특집으로 당시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던 실종에 관한 이야기를 두 차례로 나눠 다뤘다. 10만명이 넘는 실종자와 그 가족의 고통이 많은 이들의 안타까움을 샀고, 이른바 '인신매매'와 성매매의 어두운 그림자를 고발했고, 시청자는 분노했다.

'인간시대'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만날 수 있는 평범한 이웃들의 이야기를 가감 없이 카메라에 담아냈다. 소녀가장, 장애인 가족, 시골장터의 장물뱅이 등 평범하지만 깊은 사연을 지닌 이들은 인간적 체취를 풍겨내며 시청자에게 감동을 안겼다.

그 가운데 가장 화제가 된 출연자는 스웨덴 입양아 신유숙씨였다. 1989년 11월27일 방송된 '수잔 브링크의 아리랑'을 통해 소개된 신씨는 입양의 아픔으로 많은 이들의 눈물을 자아냈다. 신씨의 이야기는 훗날 영화로도 만들어졌다.

동명 영화의 주인공이었던 최진실 역시 '인간시대'에 출연했다. 이처럼 연예인들의 이야기도 등장했지만, 주로 무명의 가수들이었다. 1988년 2월 '정아의 겨울일기' 편에서 불치병을 앓는 여중생을 위해 공연하는 사연 등을 풀어낸 무명가수 김홍국이 대표적이다. 1989년 11월에는 '신바람 이바사'인 이용석의 이야기도 화제를 모았다. 쌍둥이 듀오 수와 진은 심장병 어린이들을 돕는 파스한 마음으로 시청자의 공감을 샀다.

'인간시대' 출연자들은 1987년 9월 '인간회'라는 모임을 만들기도 했다. 그리고 봉사활동과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도 앞장섰다.

'인간시대'는 박명성, 고선희 등 작가들이 쓴 대본의 힘과 내레이션의 파스한 그리고 꾸미지 않는 장면에 담긴 이웃들의 모습으로 찬사를 받은 프로그램이었다. 하지만 1993년 5월17일 '머리를 빼는 남자' 감용 편(371회) 마지막으로 막을 내렸다. 이후 5개월 뒤 '新 인간시대'가 신설됐지만 이마저도 1996년 2월 사라졌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편집 | 고창일 기자 ico@donga.com



sizer

특허받은 남성 기능성 건강팬티

당신도 모르는 사이 **사타구니**를 긁고 계시지 않나요?

남성은 신체조건상 음낭과 음경으로 나뉘어지는데 음낭의 아래 사타구니 주변은 통풍이 잘 되지 않아 다습하며 스네그마(지방성남성분비물)등 곰팡이성 유해세균 등이 서식하기 좋은 조건이 형성된다.

시저! 남성의 중요한 부분을 항상 쾌적하게 유지

남성의 사타구니가 습하거나 가려우면 성관계시 여성에게 해가 될 수 있다. 이처럼 남성 실 청결은 여성의 건강과도 직결 된다. 또한 좋은 팬티를 고르는 기준이라 하면 피부에 닿는 촉감이 부드럽고 가벼우며 끈끈함 없이 보송보송하고 산뜻해야 한다. 남성 기능성 팬티 '시저'는 사타구니, 고환, 음경을 3단 분리하여 땀이 덜 차고 보송하게 유지해 준다. 골프, 등산, 조깅 등 활동량이 많은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 하루종일 앉아 있는 사무직 직장인 등 모든 남성에게 강력히 추천한다.

시저를 입으면, 남자의 자존심이 살아난다.

쇼핑몰 : www.sizer.kr
문의전화 : 1577-5579

한 손으로 편안하게 주머니형 디자인

팬티 앞면의 주머니 덮개는 소변을 볼 때 허리 밴드를 내리지 않아도 되는 디자인으로 **한 손으로는 핸드폰을 받으면서, 다른 한 손으로는 편안하게 소변을 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남성을 위한 3단 분리 디자인

예로부터 남성의 고통을 차갑게 해야 정력에 좋다 하였습니니다. 정자를 생산하려면 고통의 온도가 체온보다 2~3도 정도 낮아야 합니다. 남성 기능성 건강팬티 시저는 **사타구니와 고환, 고환과 음경, 음경과 하복부**가 확실하게 3단 분리되는 디자인으로 통기가 우수하여 땀이 덜 차고 온도 조절 능력이 뛰어난 기능성 팬티입니다.

항균, 항습, 항취 ATB-100

물을 빨리 흡수하고 배출해 습기로 인한 세균의 번식을 억제하여 뛰어난 항균 효과를 발휘합니다. 또한, ATB-100원단에는 은사까지 함유되어 높은 항균성을 지니며 여러번 세탁해도 항균력이 떨어지지 않는 기능성원단입니다.

특허받은 팬티 시저

본 발명은 남성의 음경과 음낭이 각각 격리됨으로써, 땀에 의한 불편함이 해소되어 남성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발명특허 제 10-1212608호



시저골드 SIZERGOLD

시저레몬 SIZERLEMON

시저실버 SIZERSILVER

시저네비 SIZERNAVY

시저블루 SIZERBLUE

시저와인 SIZERWINE

시저레드 SIZERRED

시저지브라 SIZERZEBRA

시저웨이브 SIZERWAVE

시저웨이브스카이 SIZERWAVES